

광양항 국제원자재 거래단지 조성 탄력 받나

市, 오늘 中 CEO 49명 초청 투자설명회 일부 참여기업 가계약 약정 체결할 듯

광양시가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들어설 국제 원자재 거래단지 조성을 위해 중국의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8일 “29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천진시, 라오닝성 건축공업협회 CEO와 관계자 49명을 초청한 가운

데 ‘광양항 국제 원자재 거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광양국제 원자재 거래단지’ 조성을 위한 중국 심양 투자설명회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시는 당시 입주희망 120개 업체 중 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 부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실질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부 참여기업이 가계약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심양 건자재 기업인 영문석재와 최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얻게 된다.

라오닝성 건축자재공업협회는 시멘트, 보온자재, 건축자재, 유리 등 총 회원수가 2198업체에 달하며, 중국 14개 공업관련협회 중 6위, 32개 건축자재협회 중 6위, 타일단지는 전국에서 2~3위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자재 세계시장이 중국으로 집중됨에 착안해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지대에 우선 건자재 거래 센터를 조성하고, 향후 IT나 해양플랜트 등 원자

재 거래소를 설치해 나간다는 복안으로 원자재 가공, 제조관련 부가가치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국제원자재거래단지 조성사업은 중마공유수면매립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에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등 사업비 77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국비가 지원받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고흥 군정 올바르게 바로잡다

평가위원회-군 실·과장 원탁회의 호평

박병중 고흥군수가 고흥 군정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듣기 위해 가진 원탁토론회가 호평을 받고 있다.

고흥군은 28일 “지난 23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고흥군정 평가위원회와 군청 실·과장이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 고흥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원탁토론회에는 군민이 행사장 뒤에 앉고 공무원이 배석하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평가위원과 실과소장 등 59명이 각각의 원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3차례의 민선 5기 공약 사항 군민평가 실시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와 함께 심도있는 건의 및 개선사항이 제시됐으며, 실과소장들은 남은 민선 5기 기간 동안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등 시종 진지하게 이어졌다.

/고흥=주창중기자 gjju@kwangju.co.kr

박 군수는 이날 “그동안 행정의 눈으로 보지 못한 문제점 등이 속속히 배어있고 수급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드시 접목해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이루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2부 행사는 ‘군민에게 길을 묻다’는 주제로 ‘고흥에서 살면서 가장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 ‘2014년 예산편성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등 제시안건에 대한 열린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제2기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용현 군수는 “평가위원과 실과소장들이 같은 탁자에 앉아 지역발전을 논하는 자체가 의미 있고 참신한 시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고흥=주창중기자 gjju@kwangju.co.kr



세계명차품평대회 ‘보성 녹차’ 금상

명차를 선정한 결과 보성군 (주)대한다임이 녹차부문 최고의 금상을 차지했다. 마지막날인 27일 열린 세계명차품평대회에는 총 18개 부문에 16개국 144점이 출품됐다. 사진은 국제차위원회(ITC)의 심사장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보성군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세계명차품평대회에서 국제품평기준인 ISO3103에 의거, 세계 최고의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농산물 수확기 직거래 장터 개설

여수시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소라면 이장단에서 죽림지역 직거래장터

를 여는 것으로 내달 12일에는 율촌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여천동 무선지구에서 장터를 연다.

내달 16일에는 화양면새마을협의회가 국동항에서 장터를 열고, 내달

21일에는 돌산읍 버섯농원에서 여서동에 장터를 개설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햅쌀과 고구마, 참깨, 버섯, 단감, 늙은 호박, 오이, 해풍족 등의 농산물과 홍합, 새고막, 굴 등 지역에 생산된 싱싱한 수산물 등 82개 품목이 시중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 ‘가시화’

구내식당·청사 시설관리·청소 용역 등 발주

연수생 인근 원룸촌 인기… 지역 경제 활성화

전북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입주 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등에 걸쳐 조성 중인 전북혁신도시의 기반공사가 오는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말 지방행정연수원이 입주한 데 이어 11월에는 대한지적공사가 이전하는 등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공공기관 입주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11월 입주예정인 지적공사는 구내식당, 청사시설관리, 건물청소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 3개 용역 업체를 도내 지역업체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사에서 근무할 행정인원 10여 명도 지역 인재로 채용한다.

7월 말에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 효과도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을 유치하기 위해 완주군 이서면 일대 단독주택 용지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고, 연수원에서 가까운 전주시 효자동과 중화산동 원룸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폐업상태나 다름없었던 김제시 여관단지들도 연수생 유치용으로 리모

델링이 한창 진행되는 등 연수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업계와 식당, 상가의 특수가 예상된다.

2014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이, 2015년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유지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이전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2월 기반공사가 끝나는 전북혁신도시는 9.91㎢(약 300만평)로 도시용지(34.9%)와 농생명 연구단지(65.1%)로 개발돼 인구 3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추령장승축제 벼 탈곡 체험

이날 장승제의를 시작으로 기념식에 이어 각종 공연이 이어졌다. 부설무대에서는 휴대를 이용한 벼탈곡 체험, 장승작기체험, 농기구전시회와 추억의 옛사진 전시회 등 다채롭게 열렸다.

제19회 추령장승축제가 지난 26일 순창군 북흥면 추령장승촌에서 황숙주군수, 신용군 군의회 부의장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개장

순창군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농특산품을 전·판매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직판장을 마련, 28일 오전 개장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최영일 군의회의장 및 의원, 관내 농업조합장, 농업관련 단체장, 농특산물 납품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

했다.

직판장은 기존 민속마을 내 건물을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판매장과 소포장실,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원 등으로 꾸며졌다.

개장식에서 황숙주 군수는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객들이 순창을 많이 찾고 있지만 우리 농특산품을 판매할 곳이 없었다”면서 “우수한 농산물이 있음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을 착안해 직판장을 개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해외바이어 초청 복분자 등 수출 상담

고창군은 28일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선운산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고창상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과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는 미국, 중국, 일본, 덴마크 등 13개국 31명의 바이어와 복분자, 고추, 녹차, 고구마 등 신선농산물을 가공하는 관내 26개 업체가 참가했다. 미국에서 식품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연

합회 김주한 대표는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참가와 더불어 오늘 단풍으로 유명한 고창 선운산에서 수출상담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북분자와인의 미주사회 저변 확대를 위해 2만5000명을 선주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확대, 수출 농특산물 디자인 제작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마케팅으로 농어민 소득 증진에 앞장설 방침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고창군·우체국 ‘행복 배달 빨간 자전거’ 업무 협약

고창군과 고창우체국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행복 배달 빨간 자전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과정 중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 상태를 군에 제보해 도움이 필요한 부

분에 적절히 대처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군에 전화 등으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편물 배달 중 인지한 주민 불편 등 고창우체국으로부터 제보 및 신고된 사항에 대해 군은 즉시 처리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정읍시 ‘쌔고들 시장’ 한복거리 특화 패션쇼

정읍시는 28일 “지난 25일 쌔고들 시장에서 김생기 시장, 문영소·우천규 시의원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단(한복)거리 특화를 위한 ‘정읍한복 패션쇼’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전통한복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 등을 개선, 생산해오고

있는 생활한복전문업체인 (주)돌살나에서 개발한 생활한복 36점을 선보였다. 패션쇼에 앞서 자주식 대형주차장 준공 기념식도 열렸다. 주차장은 총 3개소 222면으로, 주차장 준공으로 쌔고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순창군 농기센터 제 3기 농촌기술학교 본격 교육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제3기 장기합숙형 순창 농촌기술학교에 귀농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순창 귀농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개교한 제3기 농촌기술학교에 20

명이 참여해 5주간 합숙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귀농교육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제3기 기술학교는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 면접시험을 통해 입학정원을 거쳤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 순창에 귀농정착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명회

남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설명회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 대표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숙명여대 김주덕 교수가 ‘국내외 친환경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

망’으로 한 주제 발표 등이 이어졌다.

시는 화장품 업체 유치를 위해 기업지원파트너제도를 도입, 투자규모별 ‘1기업-1담당’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투자금액 30% 이내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